금주의 법구-〈법구경〉
항상 새벽처럼 깨어 있어라.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을 즐겨라.
자기의 마음을 지켜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57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5년 음력 8월 16일) 2021년 9월 22일 수요일



화엄사 '화엄석경' 서울 나들이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은 9월 13일 특별전 '화장, 지리사 대화엄사'를 개막했다. 전시회에서는 '화엄십찰'로서 화엄사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성보들이 공개됐다. 특히 1만4000여 점이 넘는 조각편으로 전해오고 있는 '화엄석경(보물)'은 화엄사가 오래전부터 화엄사상을 선양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성보다. 사진은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화엄사의 '화엄석경'을 보고 있는 모습. 사진=박재완 기자

아프간 특별기여자 지원성금 1억원

조계종, 9월18일 적십자 통해
생계 · 의료 · 정착 지원 예정

조계종이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를 위한 성금 1억 원을 쾌척했다. 성금은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체류 중인 특별기여자와 가족들의 생계 및 정착 지원 기금으로 사용된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9월 17일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 4층 강당에서 신희영 대한적십자사 회장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만나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지원성금 1억 원을 전달했다. 특별기여자들은 그동안 한국을 도왔던 아프간인들로, 이슬람 무장조직인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후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됐고, 최근 우리 정부가 주도한 '미라클 작전'을 통해 한국으로 입국했다.

원행 스님은 인사말에서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가 평화롭게 공존해야 함에도 여러 지역에서 여러 이유로 큰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게 사실"이라며 "언젠가는 인류가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그날이 올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이어 스님은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인도적으로 선도하는 것은 모든 인류의 책임"이라며 "작은 성의이지만 인류 보편적 인류애 실천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박범계 장관은 "민족의 대명절인 한가위를 앞두고 한국을 위해 특별히 기여하신 391명의 아프간 특별기여자 분들을 대한민국의 멋진 작전을 통해 완벽하게 국내로 데려왔다"며 "이것이 단순히 특별기여자를 대한민국의 품에 안아서 정착하게 하는 하나의 사건으로 보지 않는다. 원행 스님의 말씀처럼 인류의 이름으로, 전 세계 고통 받는 피부 종교 국적과 관계없이 대한민국이 한 가슴으로 안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신희영 적십자사 회장은 "작은 도움이라고 하셨지만 엄청나게 큰 도움으로, 특별기여자를 위한 기부에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적십자사는 그 도움을 철저하게 잘 관리해서 기여자들이 한국에 사는 데 전혀 문제 없게 적응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지희 기자

코로나에도 추석 자비 나눔 풍성

코로나19 장기화에 예년과 다른 풍경

현장 나눔 행사 축소된 반면
후원기금 · 물품 전달식 확대
종정 진제 스님 성금 전달도
사찰들 지역사회 회향 눈길
복지관은 비대면나눔 '활발'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선선한 가을바람과 함께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다가왔다. 불교계는 매년 추석을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소외이웃을 보듬는 다양한 나눔행사들을 지속해 왔지만,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면서 올해 추석은 예년과 다른 모양새다. 대표적으로 불교계 복지관들이 지역사회 내 양로원과 경로당, 어린이집 등에서 전개했던 송편 빚기 행사와 쪽방촌 방문 나눔 등이 자취를 감췄다.

대신 사찰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소외이웃을 위한 물품 지원과 나눔기금 전달이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복지관들 역시 나눔행보를 축소하기보다, 코로나 방역물품을 포함한 선물세트나 명절음식 키트 등으로 대체하는 등 코로나 시국에 적합한 형태로 자비 나눔을 지속해 훈훈함을 더한다.

추석을 앞둔 불교계 나눔행보는 조계종 종정예하 진제 법원 대종사의 자비나눔 성금전달로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진제 스님은 9월 12일 부산시청을 방문해 '추석맞이 불우이웃돕기 성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매년 명절을 앞둔 시기 자비 행보를 이어왔지만, 직접 시청을 방문한 것은 이례적이다.

양양 낙산사(주지 금곡)와 무산복지재단(이사장 금곡)도 9월 13일 양양군청에 이웃돕기 성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무산복지재단 산하 기관인 양양군노인복지관(관장 김지훈)도 9월 13~17일 소외어르신을 위한 '한가위 행복나눔' 행사를 통해, 부침가루와 식혜, 쌀 등으로 구성된 선물세트를 어르신 463명에 전달했다.

속초 신흥사와 신흥사복지재단(이사장 우송)은 9월 15일 산하기관 속초시노인종합복지관(관장 묘근)에서 '제40회 자비나누기=행복더하기' 행사를 진행했다.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 400세대를 위한 쌀과 과일, 농협상품권 등 5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했으며, 설악동번영회에도 후원금 750만 원을 전달해 소상공인들을 위로했다.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와 조계사 행복나눔 가피봉사단은 9월 15일 대웅전 앞마당에서 '어려울수록 이웃과 함께-2021년 한가위 마음나눔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국수와 김, 햇반 등 간편식 세트 500개가 종로구청을 통해 지역 소외이웃을 비롯한 장애인단체 등에 전달됐다.

불교계 복지관들의 명절나눔도 눈여겨 볼만하다. 특히 코로나 감염예방을 방역수칙을 최대한 준수하는 가운데, 소외이웃을 보듬기 위한 노력들이 눈에 띈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은 9월 3일 지역 내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에게 한과를 전달하고 전통놀이 행사를 진행했다. 코로나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최소화한 인원으로 행사를 진행, 이를 유튜브 영상으로 공개해 비대면으로나마 명절 분위기를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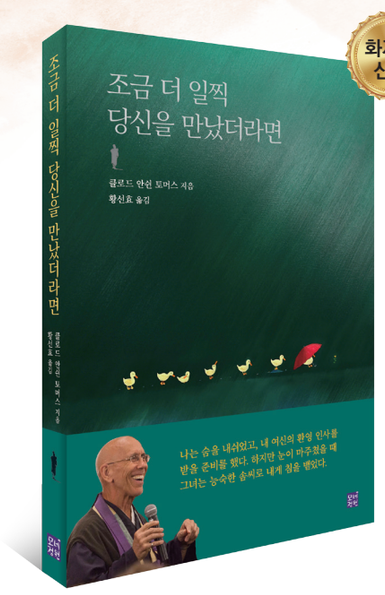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관장 혜철)은 '풍성한 한가위, 달~달~한 안양' 행사를 통해 추석 덕담 · 소원 손편지 및 동영상 공모전을 비롯해, 안부동영상 강영, 건강지킴이 키트와 송편세트 나눔에 나섰다. 물품 전달을 제외한 전 행사는 온라인을 통해 진행됐으며, 이를 통해 명절에 더욱 외로운 소외계층 어르신들의 마음을 달랬다.

옥수종합사회복지관(관장 권기현)은 지역 내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코로나19 정서지원 사업 '기억튼튼 워크북과 함께하는 즐기로운 추석나기'를 실시했다. 옥수복지관은 "워크북은 추석과 관련된 내용들로 구성돼 치매예방은 물론, 추석 명절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다"며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추석 명절에도 외로울 어르신들의 고립감을 해소하고 정신건강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길 바란다"고 취지를 전했다.

추석연휴 관계로 다음주 쉽니다.

불교 신행의 길라잡이
불교성전
佛敎聖典
「법정스님」이 엄선한 팔만사천 부처님 말씀이
한 권에 담겨있습니다.
동국역경원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클로드 안쉰 토머스 지음 / 황선효 번역 / 232쪽

전쟁에서 사람을 죽였다고 고백하는 한 전쟁 영웅이
지옥 같은 트라우마 끝에 얻어낸 삶과 고통에 대한 실증적 깨달음의 책

고통을 삶의 또 다른 기회로 만든 사람의 이야기

조금 더 일찍
당신을 만났더라면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치유를 향해 간다.

세상은 우리에게 고통은 적이라고 가르친다. 우리는 불쾌하고 실망스럽고 힘든 것은 거부하라고 끊임없이 주입받는다. "이 모든 고통이 왜 필요한가? 행복하자! 즐기자!" 하지만 고통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건너편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다. 반대편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진정으로 알고 느낄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이다.



지은이 클로드 안쉰 토머스

10대 후반의 어린 나이로 베트남 전쟁에 파병되어
항공훈장과 공군수훈십자훈장을 비롯한
수많은 훈장과 상을 받은 전쟁 영웅이다.
전쟁에 대한 심각한 트라우마로 죽음 직전까지 갔던
그는 비영리 기구인 'Zaltho Foundation'을 창립해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 곳에서 평화와
비폭력에 대한 강연 및 순례 활동을 하는
명상수행자로 거듭났다.

모네정원 모네의정원 TEL. 02-732-1520 FAX. 02-6442-1521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 정가 ~~14,000원~~ ⇨ **12,600원** (배송비 별도)